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은광¹ · 김혜진² · 김명희³

¹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²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강사, ³세명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Yoo, Eun Kwang¹ · Kim, Hye Jin² · Kim, Myoung-Hee³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²Lecturer, Department of Nursing, Hanyang University, Seoul

³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Jecheon,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of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Methods:** The participants included 508 married immigrant women who met the eligibility criteria and agre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Participants were evaluated for subjective assessment of married immigrant-related constructs using a self-report questionnaire, for self-esteem, self-efficacy, and quality of life (QOL). The analysis was done using SPSS for Windows, version 10.1, and included stepwise regression. **Results:**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1) There were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marital satisfaction ($r = .39, p = .001$), violence by the husband during the couple's arguments ($r = -.24, p < .001$), satisfaction with life in Korea ($r = .39, p < .001$), self-esteem ($r = .16, p < .001$), self-efficacy ($r = .51, p < .001$) and quality of life. 2) Marital satisfaction, self-efficacy, education level and satisfaction life with in Korea were significant factors, which explained 53% of the variance in quality of life ($F = 43.97, p < .001$).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a powerful predictor of QOL for married immigrant women was self-efficacy. **Conclusion:** Developing nursing interventions to enhance self-efficacy toward improvement of QOL among married immigrant women is recommended.

Key words: Immigrant, Women, Quality of life, Self-esteem, Self-efficacy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국제결혼은 1990년 4,710건에서 2000년 12,319건으로 2.6배 증가하였고, 매년 증가하여 2008년에는 36,204건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결혼대비 국제결혼비율은 1990년 1.2%에서 2008년에 11.0%를 차지하여 다문화가족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Kim et al., 2010).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현저히 증가하여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현재는 11%가 넘어 일반적인 결혼의 한 형태로 자리잡고 있다. 결혼이민여성의 국적은 주로 중국 조선족, 중국한족이 절반을 넘고, 베트남, 일본, 필리핀, 몽골, 태국, 러시아 등의 순이며, 이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여성의 이주화라는 특징을 가지며, 국가 간, 지역 간의 불균등한 경제적 발전에 기인할 뿐 아니라 그 안에는 인종, 계급, 젠더 등의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Jang & Lee, 2009).

이 결과, 결혼 이민자 수의 증가는 우리사회 가족 및 복지 정책의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2010년 현재 전국 170여개의 가족복지 전문기관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어: 결혼 이주 여성, 삶의 질,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본 연구는 2009년도 한국 과학재단 일반 연구자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E31200900000000852).

*This study was funded by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E31200900000000852).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Kim, Myoung-Hee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emyung University, 579 Sinwol-dong, Jecheon-si, Chungbuk, Korea, 390-711

Tel: +82-43-649-1352 Fax: +82-43-649-1785 H.P: +82-10-4049-3964 E-mail: mh1352@semyung.ac.kr

투고일: 2011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2011년 7월 4일 게재확정일: 2012년 4월 26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외에도 NGO 단체, 건강 가정 지원센터, 민간 기관 및 글로벌 센터 등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각종 정책의 최대 목적은 이주 여성의 한국사회의 문화적 적응을 돕고 나아가 삶의 질 향상 추구로 고려되므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 적응의 성공정도를 최종적으로 삶의 질로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삶의 질은 개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양적, 경제적 물질적 생활여건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생활만족의 정도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념(Oh & Yoon, 2006)으로서 결혼 이주 여성의 일생에 관한 행복 및 생의 목표 달성과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결혼을 통한 이주 여성들의 궁극적 목적 역시 각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Kim, 2010)에 의하면 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은 일반 가족보다 더 많은 가족 갈등문제 또는 정신건강 문제가 나타난다고 한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은 부부관계에서 부부간의 대화단절과 폭력행동, 이로 인한 이혼율의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 결혼의 이혼 비율은 전체 이혼 대비 1996년 2.1%에서 2007년 7.0%, 2010년 9.6%로 다문화가족의 해체가 증가하고 있다(Kim et al., 2010). 그러므로 이주 여성의 적응과 삶의 질 문제는 단지 결혼이민 여성 개인이나 가족단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이다.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결혼을 통한 이주를 결정한 여성들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삶에 질에 대한 인지를 확인함은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 적응 여부를 확인하고 그들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는 현재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즉 결혼 이주 여성들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연구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삶의 질과 관련된 변수는 어떤 도구로 측정하였느냐에 따라 관련 변인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국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Kim, 2006)에서 기혼 상태이고, 학력이 높고, 경제적인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 한국 노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노인의 삶의 질을 비교한 연구(Kim, Jeon, Sok, Oh, & Kim, 2009)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두 집단 모두에서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 동작이었다. Strecher, DeVellis와 Rosenstock (1986)은 단기적, 장기적인 삶의 질의 확고한 예측변인으로 자기효능감을 제시하였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 중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사회 부적응과 많은 관련성을 보이는 요인이다. Kuehner와 Buerger (2005)는 삶의 질은 건강, 사회적 상태, 개인 삶의 많은 측면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삶의 질은 자아존중감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Fry (2001)는 삶의 질과 자아효능감이 관련성이 높은 요인으로, 낮은 자아효능감은 삶의 질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높은 자아존중감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을 도와 우울 등의 부정적 정서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방어 기제적 요인으로 간주된다(Aro, 1994). Panchanadeswaran과 Dawson (2010)에 의하면 미국에 이주한 도미니크 여성들은 이민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스트레스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인 건강 측면에서, 자아존중감은 희망, 개인적 목표와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며,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인이며(Mann, Hosman, Schaalma, & de Vries, 2004), 자기효능감은 한 개인이 특정 업무나 행위를 실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 Bandura (1977)는 자기효능감은 적응 기술과 성공적인 정서적 적응 사이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자기효능감에 대한 신념에 따라 행위를 결정한다고 보았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성공적인 결과가 예측되는 스트레스 상황에 적극적으로 적응하며 참여한다고 하므로(Chino, Nemoto, Fujii, & Mizuno, 2009) 결혼 이주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 적응에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된다.

그러므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이주 여성이 한국 삶에 적응시 발생하는 스트레스 상황 대처에 중요한 개념으로 고려되며, 특히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고려된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은 인지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증진이 가능한 중재 변수이므로 추후 이주 여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활용 가능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 생활 적응 척도로서 삶의 질 수준을 확인하고자 하며,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 나아가 이주 여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확인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이주 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확인한다.

둘째, 결혼 이주 여성의 이주와 결혼생활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정도를 확인한다.

셋째, 결혼 이주 여성의 이주와 결혼생활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결혼 이후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결혼 이후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한국인 남성과 국제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이주하여 온 여성으로, 출신국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에서 온 여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하고 각 국가의 언어로 제작된 설문지를 읽고 답할 수 있는 여성을 편의 추출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Power version 3.1.2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에서 예측 요인의 수가 7개일 경우 유의 수준 0.05, 효과 크기 중간(0.15), 검정력 0.90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수는 130명이었고, 유의 수준 0.05, 효과 크기 작음(0.02), 검정력 0.90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수는 922명이었다. 본 연구에서 표본의 크기는 G*Power 분석에 근거하여 효과 크기 0.02-0.15사이의 중간 정도인 500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대상자가 외국인인 포함되어 있다는 점과 탈락률을 감안하여 베트남어 질문지 324부, 중국어 질문지 243부, 한국어 설문지 131부, 영어 질문지 52부, 총 7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이 중 불충분한 응답을 한 대상자의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508명(67.7%)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누락된 대상자가 많으므로 연구 결과 해석시 주의가 요구된다.

3. 연구 도구

1)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나이, 한국에 온 나이, 남편 나이, 국적, 출신국, 한국 거주 기간, 한국에 온 이유, 결혼 상태, 배우자 만남 방법, 교육 정도, 남편 교육정도, 종교, 가족의 총 월수입, 직업유무, 결혼 전 후 남편의 차이, 남편과 대화시 사용하는 언어 등을 조사하였다.

2) 이주와 결혼 생활 관련 특성

이주와 결혼 관련 특성은 Seol (2005)의 국제 결혼 이후 여성 실태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

였다.

(1) 이주 여성의 한국어 실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영역을 매우 서툴다 1점에서 매우 능숙하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2) 남편의 아내 나라 언어 실력: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4영역을 매우 서툴다 1점에서 매우 능숙하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3) 부부관계 만족도: 부부관계 만족도는 남편의 믿음과 이해, 부부 친밀감, 부부 성생활, 남편 가사노동 분담, 부부 대화, 부부 문화생활, 전반적인 부부관계 등 7문항을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4) 부부 폭력: 부부 폭력은 모욕적인 말, 때리겠다고 위협, 물건 던짐, 세계 밀기, 손발로 구타, 성행위 강요 등 6문항에 대해 지난 1년간 남편이 어느 정도 빈번하게 폭력을 행사했는지를 0회, 1-2회, 3-4회, 5-9회, 10회 이상의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현재 이혼하였거나 별거 중인 경우에는 별거나 이혼하기 전 1년 동안의 경험을 물었다.

(5) 한국 생활 만족도: 한국 생활 만족도는 한국에서의 생활전체, 이웃과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남편의 형제, 자매 및 친척과의 관계, 나의 한국 생활에의 적응,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등 7문항을 매우 만족하지 못한다 1점에서 매우 만족한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척도를 Baik (1993)이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질문지의 내용은 자신의 가치, 자질, 실패감, 능력, 자부심, 만족감, 존경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의 총 10문항,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문항평균점 1-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하고, 부정적 자아존중감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73$ 이었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는 인지기재이며,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다(Bandura, 1977). 본 연구에서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 개념에 근거하여 Sherer 등(1982)이 개발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Hong (1995)이 번안,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개의 하위척도인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17문항과 대인관계에서의 사회적 자기효능감 6문항으로 나뉘어져 있는 총 23문

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5) 삶의 질

삶의 질은 한 개인이 살고 있는 문화권과 가치체계의 맥락 안에서 자신의 목표, 기대, 규범, 관심과 관련하여 인생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상태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으로 정의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WHOQOL] group, 1995). 이것은 문화적, 사회적, 환경적인 배경에 중점을 둔 주관적 평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HO의 간편형 삶의 질 척도를 근거로 Min, Lee, Kim, Suh와 Kim (2000)이 개발한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간편형 척도(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WHOQOL-Bref)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삶의 질 1 문항, 전반적인 건강상태 1 문항과 그 이하 4개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영역은 신체적 건강 7 문항, 심리적 건강 6 문항, 사회적 관계 3 문항, 환경 8 문항의 총 26항목,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별 점수는 1-5점이며, 부정적 항목은 6점에서 해당 항목의 점수를 뺀 값을 해당점수로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2$ 였다.

4. IRB 승인과 자료 수집 방법

연구 진행을 위하여 기관윤리 위원회(IRB)의 심의를 거쳤다(No. 2009-09).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0년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결혼 이주 여성을 만나기 위해 서울, 경기(하남시, 용인시), 경상남도(진주),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이주 여성 센터, 보건소 등을 자료 수집의 장소로 선택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자나 연구 보조원이 직접 각 기관을 방문하여 기관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자료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각 관장의 협조아래 그곳을 방문하는 결혼 이주 여성을 소개 받았다.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현재 그들의 결혼 상태가 반드시 기혼이 아니더라도 결혼 이주 여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으로 포함하였으며, 현재 결혼 상태가 기혼이나 동거 이외의 이혼, 사별, 별거인 경우는 일부 문항에서 결혼관계를 회상하며 질문에 답해야 하는 제한점이 있었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지원자는 연구 보조원이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의 위험과 보상, 연구의 익명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연구 대상자가 자율적인 의사 결정에 따라 연구 참여와 중단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연구 동의서를 받고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와 한국어로 다음과 같은 제작 과정을 통하여 만들어졌으며, 총 3개월이 소요되었다.

베트남어 질문지는 1차 한국어에 능숙한 베트남 여성에게 한글판 연구 도구를 베트남어로 번안하도록 의뢰한 후 완성된 베트남어 번안 도구를 읽고 다시 한글로 역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는 한글과 베트남어에 능통한 다른 베트남 여성에게 번안된 베트남 질문지를 주고 원문이 잘 번역되었는지 확인하고 일반 베트남 여성들이 읽고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였다. 3차는 결혼 이주 베트남 여성 2인에게 사전 질문지 조사를 통해 문항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였고, 베트남어를 읽고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중국어 질문지는 1차 조선족 중국 여성에게 한글판 연구 도구의 중국어 번안을 의뢰하였고 완성된 중국어 번안 도구를 다시 한글로 역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는 한족 중국 여성에게 중국어로 번안된 내용을 주고 한글판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였다. 3차는 중국에서 3년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간호사 면허와 임상경력이 있는 유학 온 조선족 학생에게 번안된 중국어 질문지의 내용을 재 점검받고 최종 검토하였다.

영어 질문지는 1차 미국에서 건강 관련 전공자인 한국 유학생과 한국어에 능숙한 재미교포 2세인 대학원생에게 영어 번안을 의뢰하였고 번역문을 다시 한글로 역 번역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는 주저자가 한글 도구와 영문 도구를 비교 검토하여 원문의 뜻이 잘 표현되게 번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차는 필리핀 이주 여성에게 각 문항을 읽고 무엇을 물어 보는지 영어로 표현하게 하여 최종 확인하였다.

이렇게 완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이주 여성의 출신국가에 적합한 언어로 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를 완성하는데 언어이해 수준과 개인의 이해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1인당 약 40-9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설문이 끝난 후 소정의 사례비를 주었다.

자료 수집과정에서 도구 번안 과정에 참여한 여성들이 설문지를 나누어 주고 혹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나 필리핀어로 재설명하여 이해를 도와 가능한 번안된 도구의 제한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였다.

결혼 이주 여성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

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e 방법을 이용하였다.

· 결혼 이주 여성의 이주와 결혼 생활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였으며 이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

대상자의 나이는 19세에서 60세로 평균 29.9세였으며, 남편의 나이는 24-74세로 평균 41.9세였다. 대상자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52.6%였고, 중국이 38.6%였고 기타(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등)가 8.9%였다. 한국에 거주기간은 1개월에서 20년까지 다양했고, 평균 41.9개월이었다. 한국에 온 이유는 결혼이 84.4%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현재 결혼 상태는 78.0%가 기혼상태였다. 배우자를 만난 계기는 주로 결혼 소개소가 40.2%였고, 자유연애가 16.3%, 기타(종교기관, 친구소개, 부모, 형제 소개, 이외 기타)가 43.5%였다. 대상자와 배우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각각 40.4%, 55.1%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50.4%가 종교가 있었고, 가족의 총 월수입은 0-1,800만 원으로 평균 251.65만 원이었다. 이주 여성의 62.3%는 직업이 없었고, 결혼 전후 남편에 대한 정보가 유사한 것은 65.5%였고, 34.5%는 결혼 전후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다. 남편과의 대화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가 81.7%였고, 영어가 7.3%, 본국어 3.5%,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7.5%였다.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나이($F=4.09, p=.017$), 출신국($F=13.49, p<.001$), 배우자를 만난 계기($F=11.46, p<.001$), 교육정도($F=10.74, p<.001$), 남편의 교육 정도($F=5.11, p=.002$), 가족의 총 월수입($F=9.12, p<.001$), 결혼 전후 남편의 차이($t=-5.66, p<.001$), 남편과 대화 시 사용하는 언어($F=6.5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1).

2. 대상자의 이주와 결혼 생활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정도

대상자의 한국어 실력은 평균 3.25로 보통이었고, 남편의 부인 나라의 언어실력은 1.85점으로 서툴다고 나타났다.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3.51점으로 약간 만족한다고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부부 싸움시의 폭력 정도는 1.33점으로 1-2회 이하로 나타났다. 한국 생

활에 대한 만족도는 3.46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2.18점으로 비교적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은 평균 3.31점으로 보통 정도였으며, 대상자의 삶의 질 정도는 3.15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이주와 결혼 생활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의 관계

이주와 결혼생활 관련 특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삶의 질은 부부관계 만족도($r=.39, p<.001$), 부부 싸움시 남편의 폭력 정도($r=-.24, p<.001$), 한국 생활 만족도($r=.39, p=.001$), 자아존중감($r=.16, p<.001$), 자기효능감($r=.51, p<.001$)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부부관계 만족도가 높을수록, 부부 싸움시 남편의 폭력이 적을수록, 한국 생활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았다(Table 3).

4.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서 삶의 질에 차이를 보인 변수와 상관관계 분석에서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요인을 회귀식에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 중 이분 변수는 더미변수화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수는 최종적으로 부부관계 만족도($t=3.74, p<.001$), 자기효능감($t=4.87, p<.001$), 교육정도($t=4.43, p<.001$)와 한국 생활 만족도($t=2.75, p=.007$)로, 결혼 이주 여성 삶의 질에 대한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총 53%였다.

공차한계는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여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Durbin-Watson값은 1.58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0 또는 4에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해석된다(Table 4).

논 의

현대사회에서는 신체적, 심리 사회적 보호와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지녀야 할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로 강조되고 있다. 삶의 질을 높이고자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은 결혼을 통한 이주를 하므로 새로운 결혼 생활 적응과 더불어 이민자로서 한국 생활 적응의 문제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삶의 질을 파악하고, 삶의 질에 영향을

Table 1. Differences of Quality of Life according to Socio-demographic Factors

(N=508)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 ± SD (Range)	Quality of life	t or F (p)	Post-Hoc
				M ± SD		
Age (yr)	19-30 ^a	318 (62.6)	29.9 ± 6.8 (19-60)	3.12 ± 0.45	4.09 (.017)	b > a
	31-40 ^b	158 (31.1)		3.23 ± 0.52		
	≥ 41 ^c	32 (6.3)		3.03 ± 0.40		
Age of husband (yr) (n=495)	24-30	19 (3.8)	41.9 ± 6.8 (24-74)	3.28 ± 0.75	1.22 (.301)	
	31-40	222 (44.8)		3.16 ± 0.45		
	41-50	211 (42.8)		3.13 ± 0.46		
	≥ 51	43 (8.7)		3.05 ± 0.35		
Native country	China ^a	196 (38.6)		3.15 ± 0.49	13.49 (<.001)	c > a, b
	Vietnam ^b	267 (52.6)		3.09 ± 0.41		
	Others ^c	45 (8.9)		3.48 ± 0.59		
Length of residence in Korea (yr) (n=484)	<2	138 (28.5)	41.9 ± 6.8 (month) (1 mon.-20 yrs.)	3.19 ± 0.47	1.67 (.172)	
	2- < 4	159 (32.9)		3.11 ± 0.45		
	4- < 6	92 (19.0)		3.11 ± 0.40		
	≥ 6	95 (19.6)		3.21 ± 0.55		
Reason for coming to Korea	Marriage	429 (84.4)		3.14 ± 0.43	0.49 (.615)	
	Employment	35 (6.9)		3.15 ± 0.66		
	Others	44 (8.7)		3.22 ± 0.62		
Marital status	Married	396 (78.0)		3.16 ± 0.47	2.14 (.144)	
	Others	112 (22.0)		3.09 ± 0.48		
How did you meet your husband?	Free dating ^a	83 (16.3)		3.32 ± 0.59	11.46 (<.001)	a, c > b
	Marriage agencies ^b	204 (40.2)		3.04 ± 0.34		
	Others ^c	221 (43.5)		3.18 ± 0.50		
Education	≤ Middle school ^a	197 (38.8)		3.06 ± 0.40	10.74 (<.001)	c > a, b
	High school ^b	205 (40.4)		3.12 ± 0.47		
	College ^c	86 (16.9)		3.39 ± 0.56		
	Others ^d	20 (3.9)		3.17 ± 0.30		
Education of husband	≤ Middle school ^a	86 (16.9)		3.05 ± 0.41	5.11 (.002)	c > a, b
	High school ^b	280 (55.1)		3.12 ± 0.45		
	College ^c	116 (22.8)		3.29 ± 0.54		
	Others ^d	26 (5.1)		3.16 ± 0.44		
Religion	None	252 (49.6)		3.12 ± 0.44	-1.18 (.238)	
	Have	256 (50.4)		3.17 ± 0.50		
Family's monthly income (Unit: 10,000 won) (n=253)	150 or less ^a	58 (22.9)	251.65 ± 177.32 (0-1,800)	3.11 ± 0.39	9.12 (<.001)	c > a, b
	151- 300 ^b	157 (62.1)		3.13 ± 0.47		
	Over 301 ^c	38 (15.0)		3.46 ± 0.50		
Job (n=448)	No	279 (62.3)		3.16 ± 0.43	0.08 (.940)	
	Yes	169 (37.7)		3.16 ± 0.51		
Difference* (n=490)	Many differences	169 (34.5)		2.99 ± 0.44	-5.66 (<.001)	
	Little difference	321 (65.5)		3.23 ± 0.47		
Language [†]	Korean ^a	415 (81.7)		3.16 ± 0.46	6.50 (<.001)	a, b > d
	English ^b	37 (7.3)		3.37 ± 0.56		
	Native language ^c	18 (3.5)		3.02 ± 0.32		
	Almost no dialogue ^d	38 (7.5)		2.91 ± 0.49		

*Difference: Difference in husband's character between before and after marriage; †Language: Language used for chatting with husband.

Table 2. Levels of Quality of Life and related Variables

Variables	n	Min.	Max.	M ± SD
Korean language ability of immigrant women	497	1.00	5.00	3.25 ± 1.04
Ability of husband in language of the wife's country	487	1.00	5.00	1.85 ± 1.17
Marital satisfaction	481	1.00	5.00	3.51 ± 0.91
Violence by the husband during the couple's arguments	466	1.00	5.00	1.33 ± 0.70
Satisfaction with Life in Korea	383	1.00	5.00	3.46 ± 0.71
Self-esteem	504	1.00	3.80	2.18 ± 0.46
Self-efficacy	508	2.04	4.96	3.31 ± 0.39
Quality of life	508	1.38	4.81	3.15 ± 0.47

주는 요인을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확인하므로써 추후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계획과 이주 여성을 위한 보건, 복지 지원 정책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인 결혼 이주 여성은 남편과 평균 12세 차이를 보였는데, Hong과 Chae (2006)는 이런 다문화 가정의 심한 연령차는 가정 내에서 남편의 권력으로 작용하는 불평등한 부부관계로 인해 부부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연령의 경우 연령에 따라 삶의 질 차이를 보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수준에서 삶의 질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 자신의 본국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결혼을 결심하므로(Seol, 2005) 이들에게 한국에서의 경제적 상황은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의 총 월수입에 따라 삶의 질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150만원 이하, 151-300만 원 집단은 301만 원 이상 집단보다 삶의 질이 낮았다. 여성들은 본국의 경제 상황보다 낮다고 고려하여 결혼 이주를 통해 한국에 오고,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낮은 남성들은 한국 여성과의 결혼 조건이 불리하여 국제 결혼을 결정하는 현상은 국제결혼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이므로 국제 결혼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책으로서 결혼 적령기 대상자에게 올바른 결혼관에 대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 고려된다.

결혼 이주 여성이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은 주로 결혼 소개소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상대 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애정적인 요소가 배제되고 중매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혼의 경우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여겨진다. 본 조사에서 남편에 대한 사전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34.5%는 결혼 전후 많이 다르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Hong과 Chae (2006)의 연구에서도 남성들 중 자신의 직업과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 결혼 후 여성이 기대와 현실에서 오는 차이로 실망과 불행감으로 결혼 생활이 원만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한 바 있어,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기 전 충분히 서로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도록 홍보하고 교육함이 중요하다고 고려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 차이를 검증한 결과 나이, 출신국, 배우자와 만난 계기, 교육정도, 남편의 교육 정도, 가족의 총 월수입, 결혼 전후 남편의 차이, 남편과 대화시 사용하는 언어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Kim (2008)은 다문화 가족의 연령 차이, 학력 차이, 소득, 사전 정보 일치 등에 따라 다문화 가족 아내의 결혼만족도가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 Jun, Min, Lee와 Choi (2009)는 한국어 능력에 따라 결혼 만족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Hong과 Chae (2006)는 종교를 가진 여성이 종교의 힘으로 한국 생활을 더 잘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종교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구학적 변인 중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은 공통적으로 이주 여성의 삶의 질이나 결혼 만

Table 3. Correlations of related Variables with Quality of Life (N=508)

Variables	Quality of life
	r (p)
Korean language ability of immigrant women	.04 (.328)
Ability of husband in language of the wife's country	.06 (.163)
Marital satisfaction	.39 (.001)
Violence by the husband during the couple's arguments	-.24 (<.001)
Satisfaction with life in Korea	.39 (<.001)
Self-esteem	.16 (<.001)
Self-efficacy	.51 (<.001)

Table 4. Regression Equation Values for the Prediction of Quality of Life

(N=508)

Model		B	SE	β	t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Adj. R ²	F (p)
Model 1	(Constant)	54.80	3.26		16.81	<.001				
	MS	7.95	0.91	.58	8.72	<.001	1.00	1.00	.33	76.07 (<.001)
Model 2	(Constant)	20.77	6.45		3.22	.002				
	MS	6.09	0.88	.44	6.91	<.001	.87	1.15	.45	64.19 (<.001)
	Self-efficacy	0.53	0.09	.38	5.93	<.001	.87	1.15		
Model 3	(Constant)	26.18	6.24		4.20	<.001				
	MS	5.48	0.85	.40	6.47	<.001	.85	1.18	.51	53.75 (<.001)
	Self-efficacy	0.46	0.09	.33	5.38	<.001	.84	1.18		
	Education*	7.23	1.70	.25	4.26	<.001	.91	1.10		
Model 4	(Constant)	22.74	6.24		3.65	<.001				
	MS	3.83	1.02	.28	3.74	<.001	.56	1.80	.53	43.97 (<.001)
	Self-efficacy	0.42	0.09	.30	4.87	<.001	.81	1.23		Durbin-Watson = 1.58
	Education	7.35	1.66	.26	4.43	<.001	.91	1.10		
	LSK	3.70	1.35	.20	2.75	.007	.57	1.77		

MS = Marital satisfaction; LSK = Life satisfaction in Korea; Dependent variables = Quality of life.
 *Education = Dummy coded (less middle school = 000, high school = 100, college = 010, others = 001).

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고려되는 변수이다. 이 중 교육 수준은 회귀분석에서 유의하게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한국어 실력은 5점 중 평균 3.25로 보통이었고, 남편의 부인 나라의 언어실력은 5점 중 1.85점으로 서툴다고 나타났고,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3.51점으로 약간 만족한다고 나타나, Seol (2005)의 연구 결과인 3.69점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관계 만족도가 보통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제 결혼 부부의 이혼율이 높은 것은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Kye, Kang과 Jeong (2009)은 결혼이민 여성들은 그들의 경제 사정이 열악하더라도 본국 가정의 경제 사항에 비하면 현재 한국에서의 생활수준이 나아진 것으로 여겨 결혼 생활의 만족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난 1년간 부부싸움시의 폭력 정도는 1.33점으로 1-2회 이하로 나타나 부부간의 불화가 종종 폭력으로 진전되기도 함을 알 수 있었는데, Seol (2005)이 제언하듯 국제 결혼 부부를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결혼 이주 여성의 통계는 남편과 많은 연령차이, 단기간의 결혼 성립으로 인한 상대 배우자에 대한 이해 부족, 의사소통 문제와 문화의 차이 등을 보여주며, 이런 요인들이 부부 결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 자체를 예방해 나가는 정책이 일차적으로 중요하지만 현재 이런 불리한 요인들을 갖고 생활하는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는 여성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대처하느냐가 적응과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점수는 평균 2.18점으로 비교적 낮았고, 자기효능감은 평균 3.31점으로 보통 정도였고, 삶의 질 정도는 평균 3.15점으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An과 Kim (2009)의 연구에서 기혼 취업 여성 자아존중감은 한국인이 3.69, 한국은 3.50, 조선족 3.01로 나타난 것과 비교시 결혼 이주 여성의 자아존중감이 매우 낮았다. 이주를 통한 문화적응 과정은 이주 여성들이 자신에게 익숙한 사회망과의 단절, 언어적 문제, 고용이나 차별과 같은 문화 충돌을 겪는 잠재적인 스트레스 상황으로 이는 결과적으로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므로(Flaskerud & Uman, 1996) 본 대상자의 낮은 자아존중감이 설명된다. 그러나 낮은 자아존중감은 사회부적응의 원인이면서 결과이기도 하므로 이주 여성의 적응을 돕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사건은 잘 받아들이고 부정적 사건은 상쇄하거나 제한해서 받아들이므로 긍정적인 경험으로부터는 혜택을 취하지만 부정적 경험은 덜 반응하므로(Shin, 2004) 결혼 이주 여성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그러나 자아존중감은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에서 유의한 관계는 있었으나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회귀 분석에서 삶의 질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과 매우 강한 상관성이 있는 인성적 특성으로 간주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이 한국 여성들의 삶의 질 평가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는(An & Kim, 2009) 보고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였으므로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추후 연구가 더 요구되는 부분이다.

자기효능감은 Kim과 Sok (2010)의 연구에서 한국과 중년여성의 자기효능이 중간 이하의 점수를 보인 것과 비교시 본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이 약간 높았다. 결혼 이주 여성의 자아효능감이 보통 이상의 점수를 보인 것은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Bandura (1977)에 의하면 자기효능은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하는 일련의 행동 과정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해 낼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므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학습 동기가 높고, 일의 결과가 좋은 결과를 보이므로 이들이 한국 상황의 적응 스트레스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좀 더 잘 해결할 자원으로 보인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회귀분석에서도 자기효능감은 가장 설명력이 높은 요인으로 확인되어, Bentsen, Wentzel-Larsen, Henriksen, Rokne와 Wahl (2010)이 제시하듯 자기효능감은 삶의 질 증진의 예측인자로서 활용이 가능한 변인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 대상자의 삶의 질은 5점 만점에 평균 3.15점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중간보다 약간 높은 점수로, 한국인의 표준 삶의 질을 WHOQOL-BREF으로 측정한 Min 등(2000)의 연구에서 86.13점(100점 만점)에 비해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 정도가 낮았다. 그러므로 이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주 여성의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안은 결혼 이주 여성의 적응과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의 긍정적, 적응적 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행동을 이해하고 개입하려는 강점 관점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그러한 개념의 중심이 자기효능감으로 고려된다. 자기효능감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부부관계 만족도, 교육정도과 한국 생활 만족도가 유의한 변수이었으며,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총 53%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결혼 이주 여성은 경제적 문제, 의사소통, 부부 적응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이주 여성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개인 인지적 요인인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 인자의 개발과 향상을 통해 이들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고려된다.

결론

본 연구는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부관계 만족도, 자기효능감, 교육정도와 한국 생활 만족도였으며,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대한 이들 요인의 설명력은 총 53%였다. 이 중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가장 설명력이 큰 요인은 자아효능감이었으며, 다음은 부부 관계 만족도, 교육정도, 한국생활 만족도 순으로 확인되었다.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으로 기대하였으나, 자아존중감의 경우 삶의 질과 유의한 상관 관계는 보였으나 회귀분석 결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지는 않아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요구되며, 자기효능감은 결혼 이주 여성의 삶의 질에 강력한 예측인자로 확인되었으므로 이주 여성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결혼 이주 여성이 사회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긍정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게 도와주므로서, 궁극적으로는 이주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본 연구는 이주 여성의 적응에 중요한 지표인 삶의 질을 측정하고 삶의 질 관련 요인으로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 요인의 역할을 파악함으로써 결혼 이주 여성의 안정적인 적응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연구의 제한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모두 포괄하여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이주 여성의 삶의 질을 추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에 대한 탐색을 시도해 볼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n, H. S., & Kim, K. S. (2009). A comparative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of Korean and Chinese women who are employed and married.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7(1), 127-144.
- Aro, H. (1994).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depression: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89(s377), 59-64. <http://dx.doi.org/10.1111/j.1600-0447.1994.tb05804.x>
- Baik, H. W. (1993). *Comparison of psychological character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da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http://dx.doi.org/10.1037/0033-295X.84.2.191>
- Bentsen, S. B., Wentzel-Larsen, T., Henriksen, A. H., Rokne, B., & Wahl, A. K. (2010). Self-efficacy as a predictor of improvement in health status and overall quality of life in pulmonary rehabilitation - An exploratory study.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81, 5-13. <http://dx.doi.org/10.1016/j.pec.2009.11.019>
- Chino, B., Nemoto, T., Fujii, C., & Mizuno, M. (2009). Subjective assessments of the quality of life, well-being and self-efficacy in patients with schizophrenia.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63, 521-528. <http://dx.doi.org/10.1111/j.1440-1819.2009.01995.x>
- Flaskerud, J. H., & Uman, G. (1996). Acculturation and its effects on self-esteem among immigrant Latina women. *Behavioral Medicine*, 22, 123-133. <http://dx.doi.org/10.1080/08964289.1996.9933773>
- Fry, P. S. (2001). Predictors of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perspectives,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s of older adults following spousal loss: An 18-month follow-up study of widows and widowers. *The Gerontologist*, 41, 787-798. <http://dx.doi.org/10.1093/geront/41.6.787>
- Hong, D. A. G., & Chae, O. H. (2006). Family life and conflicts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 729-741.
- Hong, H. Y. (1995). *The relationships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Jang, M. S., & Lee, O. K. (2009). *A research on the economic independence of marriage immigrant women in Seoul through the capacity development for employment or businesses*. Seoul: Seoul Foundation of Women & Family.
- Jun, H. J., Min, S. H., Lee, M. Y., & Choi, H. Y. (2009). Path of the variables to migrant women's families' health.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4(2), 5-27.
- Kim, E. K. (2008). The factors related to the marital satisfaction of the foreign wives who live in small tow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6(6), 83-94.
- Kim, H. S. (2010). Social integration and health policy issues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South Korea. *Public Health Nursing*, 27, 561-570. <http://dx.doi.org/10.1111/j.1525-1446.2010.00883.x>
- Kim, K. B., & Sok, S. R. (2010). A comparison of the health and related quality of life between middle-aged Korean and Chinese women.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57, 463-469. <http://dx.doi.org/10.1111/j.1466-7657.2010.00816.x>
- Kim, S. J. (2006).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health promoting life-style, depression, quality of life among middle aged wom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 Kim, S. K., Kim, Y. K., Cho, A. J., Kim, H. R., Lee, H. K., Seol, D. H., et al. (2010). *A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09*.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Kim, S. Y., Jeon, E. Y., Sok, S. R., Oh, H. K., & Kim, K. B. (2009). Quality of life of Korean and Korean American older adults: A comparison. *Journal of Gerontological Nursing*, 35(6), 28-34.
- Kuehner, C., & Bueger, C. (2005). Determinants of subjective quality of life in depressed patients: The role of self-esteem, response style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6, 205-213.
- Kye, S. J., Kang, H. K., & Jeong, M. S. (2009). The study on the marital life factors for the multi-culture families: Focused on the case study of multi-culture family in Yongsan-Gu.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3), 31-57.
- Mann, M., Hosman, C. M., Schaalma, H. P., & de Vries, N. K. (2004). Self-esteem in a broad-spectrum approach for mental health promotion. *Health Education Research*, 19, 357-372. <http://dx.doi.org/10.1093/her/cyg041>

- Min, S. K., Lee, C. I., Kim, K. I., Suh, S. Y., & Kim, D. K. (2000). Development of Korean version of WHO quality of life scale abbreviated version (WHOQOL-BREF).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9*, 571-579.
- Oh, S. H., & Yoon, D. S. (2006). A comparative study on quality of life on the elderly among urban, farm and island area.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32*, 119-147.
- Panchanadeswaran, S., & Dawson, B. A. (2010). How discrimination and stress affects self-esteem among Dominican immigrant women: An exploratory study. *Social Work in Public Health, 26*, 60-77. <http://dx.doi.org/10.1080/10911350903341069>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ol, D. H. (2005). *Foreign wives' life in Korea: Focusing on the policy of welfare and health*. Gwacheo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Sherer, M., Maddux, J. E., Merca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 Rogers, R. W.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hin, S. M. (2004). A study on house wives' self esteem, level of the stress perceived and coping style for stress. *Understanding People, 25*, 47-62.
- Strecher, V. J., DeVellis, B. M., Becker, M. H., & Rosenstock, I. M. (1986). The role of self-efficacy in achieving health behavior change. *Health Education Quarterly, 13*, 73-92.
-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Group. (1995).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Quality of Life (WHOQOL) assessment: Position paper fro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41*, 1403-1409. [http://dx.doi.org/10.1016/0277-9536-\(95\)00112-K](http://dx.doi.org/10.1016/0277-9536-(95)00112-K)